

폐기종

폐기종이란?

호흡기는 폐와 기관지, 이를 둘러 싸고 있는 흉곽(가슴뼈와 늑골)과 복부와 흉부를 나누는 횡경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흡기의 주된 기능은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는 환기기능이며 기관지를 통해 공기가 폐포(허파파리) 속으로 이동하게 된다.

폐를 고무풍선에 비유한다면 숨을 들이 쉴 때는 흉곽을 크게 해서 풍선을 부풀게 하고 내쉴 때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 풍선이 줄어들는데 이는 풍선과 같은 폐포의 탄력성 때문이다. 폐기종이란 이러한 풍선이 줄어들려는 힘, 즉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폐기종의 원인

폐기종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폐포벽이 손상을 받아 폐포가 터져서 커지는 질환으로서 숨을 들이 쉴 때는 쉽게 공기가 들어오나 내쉴 때는 잘 내쉬어지지 않고 힘이 들게 된다.

그래서 폐기종 환자들은 숨을 내쉴 때 호흡곤란이 심하며 쉼썩 소리가 나고 숨이 차게 된다. 심해지면 손을 무릎 위에 지탱하고 팔을 뻗은 채 어깨를 치켜세우고 숨을 쉬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폐기종의 주된 원인은 흡연이다. 수십년에 걸쳐서 흡연을 하면 담배연기에 있는 독성으로 폐포가 손상되어 터지게 되며 한 번 터진 폐포벽은 재생이 되지 않는다. 금연을 하면 폐포 손상의 진행이 어느 정도 멈춰지지만 계속 흡연을 하면 어떤 치료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대개의 환자들은 담배를 끊지 못하고 지내다가 호흡곤란이 심해져서야 담배를 끊게 되는 데 이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다.

폐기종의 합병증

폐기종의 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흉과 호흡부전이다.

기흉은 커져 있는 폐포에 들이 쉴 때 들어온 공기가 내쉴 때 잘 나가지 않아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력성이 없는 폐포가 흉곽 내로 터지면서 기흉이 생기게 된다. 기흉이 발생하면 갑자기 흉통이 생기면서 호흡곤란이 심해진다. 이 때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기흉제거술을 받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호흡부전으로 폐기종 자체의 진행에 의한 만성호흡부전도 있을 수 있으나 대개는 감기 또는 감기 이후의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이다. 폐의 손상으로 기능이 얼마 남지 않은 폐에 염증이 발생하면 더욱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폐를 통해서 필요한 양의 산소를 얻을 수 없게 되므로 급성호흡부전에 빠지게 되고 이 때는 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등 염증 치료와 함께 산소호흡이 필요하다.

치료방법

폐기종의 치료에는 호흡곤란을 줄이기 위해 기관지 확장제 등을 투여하는 방법이 있으며, 호흡부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호흡기 감염의 발생 시 즉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매년 가을마다 독감 예방주사를, 5년에 한 번씩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주사를 적극 권유한다. 이미 손상된 폐는 회복이 되지 않으므로 남은 폐기능으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리요법 또는 재

활요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호흡근육 뿐 아니라 적응력을 증강시켜 활동을 좀더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같이 여러 치료방법으로 폐기종에 의한 호흡곤란을 도울 수 있으나 흡연을 계속한다면 치료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며 어떠한 치료에도 병은 계속 진행을 하므로 우선 담배를 끊는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